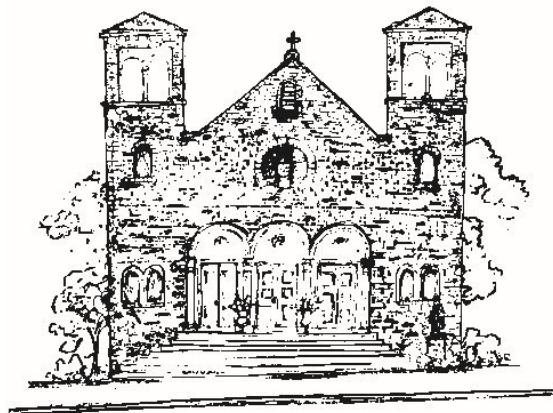


Epiphany Catholic Church

Established 1925



September 21, 2025 | Twenty-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PASTOR

Rev. Stefan Megyery

MASS SCHEDULE

WEEKEND MASSES

Saturday Vigil	5:00 pm
Sunday	7:30 am
	9:00 am (Korean)
	10:30 am

DAILY MASSES

Monday - Friday	7:30 am
-----------------	---------

CONFESSIONS

Monday - Friday	8:00 - 8:30 am
Saturday	4:00 - 4:30 pm
Other	By appointment

ROSARY

Wednesdays	5:30 pm
------------	---------

EUCCHARISTIC ADORATION

Wednesdays	6:00 - 7:00 pm
------------	----------------

SACRAMENTS & PARISH SERVICES

Parish Membership

New parishioners may register online by visiting the parish website.

Infant Baptisms

Please visit the parish website to register or contact the parish office.

Marriage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t least six months prior to the anticipated wedding date. Marriage preparation, and instruction are required.

Sick Calls

Please call if any parishioners are in need of the Sacrament of the Sick.

Religious Education (CCD) for Children

For those preparing for First Holy Commun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Order of Christian Initiation for Adults (OCIA)

For those who would like to join the Catholic Church.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Adult Confirmation

For Catholics who have not received the Sacrament of Confirmation. Please contact the parish office for more information.

2712 Dumbarton Street | Washington D.C. 20007 | (202) 965-1610
www.georgetownepiphany.org | epiphanygeorgetown@gmail.com



DAILY MEDITATION: LUKE 16:1-13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Luke 16:13)

In today's Gospel, Jesus tells the parable of a steward who had authority over all the resources of his master. However, he used his master's wealth and power to serve his own self-interest. When his master discovered he was squandering his property, he promptly fired the servant. His future uncertain, the servant reduced the debts owed to his master to secure favor for himself with the debtors. Although Jesus commends the steward for behaving prudently, he also tells his disciples,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ammon" (Luke 16:13). Jesus is clear: we can serve only God or wealth, and whichever one we choose has authority over us, for good or for ill. So how can we know which "master" we are serving? Imagine a magnificent royal throne. It might be solid gold, encrusted with rubies, or ornately carved from beautiful oak. That throne represents authority and influence; it is the seat of power from which a king rules over his servants. So in this analogy, the "throne" represents the seat of authority over our hearts, and we can choose who will sit on that throne and reign over us. To whom will we give first place? When our primary desires are for more money or greater worldly success and recognition, we have placed some form of "mammon" on the throne. And what fruit does that bear? Only the desire for more. We feel restless, envious, and burdened. However, when we give God first place in our hearts, everything else falls into place, and we experience peace, contentment, and a desire to serve him and our neighbor. What an obvious choice: Jesus is not a belittling master! Rather than demanding that we place him on the throne, he offers us an invitation. Whom will you serve today? So what can you remove from the throne of your heart to make room for Jesus?

"Lord, help me to pursue you above all else today."

Amos 8:4-7 | 1 Timothy 2:1-8 | Luke 16:1-13

MASS SCHEDULE and INTENTIONS

Saturday, September 20	5:00 pm (Vigil Mass) <i>David Marshall</i>
Sunday, September 21 Twenty-Fifth Sunday in Ordinary Time	7:30 am <i>Nicole Ganz</i> 9:00 am (Korean) <i>Special Intention</i> 10:30 am <i>Our Parish Family</i>
Monday, September 22	7:30 am <i>Sofia Quirong</i>
Tuesday, September 23 Saints Pius of Pietrelcina	7:30 am <i>Intentions in our Prayer Book</i>
Wednesday, September 24	7:30 am <i>Socorro Quirong</i>
Thursday, September 25	7:30 am <i>Dr. Dick Jones</i>
Friday, September 26	7:30 am <i>Holy Souls</i>

COLLECTIONS

September 14 Offertory Collection: \$4730

Weekly Budgeted Expenses: \$4792

CENTENNIAL CELEBRATION CONCERT

Saturday, September 27, 2025 at 6 PM

With World Renowned

Violinist Chee-Yun

with

Ellen Hwangbo, Piano



Help us to stay in contact!
georgetownepiphany.flocknote.com

Visit us on Facebook:
facebook.com/EpiphanyGeorgetown



주님 공현 천주교회

시작성가	287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성체성가	179	주의 사랑 전하리
봉헌성가	340	봉헌	마침성가	289	병인 순교자 노래
제1독서	지혜서 3,1-9		제2독서	로마서 8,31-39	
화답송					
복음 환호송	눈물 로 씨 뿌 리 던 사 람 들 환 호 하 며 거 두 리 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9,23-26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9,24).	

◎ **순교자 대축일 미사** 오늘 9월 22일(주일)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9월 20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은 “매일 미사 127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인 예비자/견진자 교리** 2025-2026년 예비자 교리가 9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가톨릭 신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자와 견진성사를 받고자 하는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교리시간은 아침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입니다.

◎ **주일학교** 지난 주부터 주일학교를 개강했습니다. 9월 14일 - 11월 2일까지는 세례성사와 첫영성체를 모실 학생반을 진행하며, 그 이후 12월까지 모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를 진행합니다. 주일학교에 관한 문의나 교리교사, 후원에 관심 있는 분은 강지은 프란체스카(jieun.i.kang@gmail.com) 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본당 100주년과 한인 공동체 20주년을 맞아 9월 27일(토) 저녁 6시에 세계적으로 명성이 난 바이올리니스트 Chee-Yun Kim 의 연주 음악회가 성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학생 전례 안내** 9월 28일(주일)에 어린이 전례가 있습니다.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주일학교 선생님,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청년 기도 모임** 청년 기도 모임은 9월 25일(목) 저녁 7시에 지하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 바랍니다.

◎ 금주의 미사 지향

◁ 생미사 ▷

- * Preston Daniel Lee / 봉헌: 오채영 스테파노
- * 김 마리나

◁ 연미사 ▷

- * 윤재순 / 봉헌: 노 엘레나
- * 이계손 헬레나 / 봉헌: 황재우 다니엘, 조 모니카
- * 김종래 안드레아 / 봉헌: 김현주 도미니카
- * 연옥영혼과 이덕선 마태오 / 봉헌: 이 안나

◎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한인 공동체 20주년 기념 미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인 공동체 20주년과 본당 100주년을 위해 기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당 100주년 특별 기금

김 마리나, 이 안나, 장수진 빅토리아, 조성연 안젤라 차옥신 로즈마리, 최영화 에렌베타, 황재우 다니엘

* 한인 공동체 20주년 특별 기금

국정님 제네비브, 김기한 바오로, 김 마리나
김중서 제임스, 조 모니카

◎ 복음서 쓰기

20주년 기념 복음서 쓰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복음서 완필 노트는 12월 중 전시 예정입니다. 진도와 관계 없이 개인이나 가족별로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며, 복음서 전체나 복음서중 원하는 복음서를 필사할 수 있습니다. 쓰기 노트는 \$15입니다.

	9월 21일(주일)	9월 28일(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황님의 9월 기도 지향
독서자	김희범 요나 서인경 실비아	어린이 전례자	9월 14일 (낮 12시 미사) \$1,632.00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감을 받아, 하느님께 사랑받고 사랑과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피조물과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복사	정지오, 정재이 김민, 김재준	류새람 김다경, 최린		
친교	소공동체E	소공동체E		



2025년 9월 21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다해)

[한국의 모든 성인 축일]

오늘 우리는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과 용기를 되새기며 그들의 삶을 본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순교란 어떤 의미일까요?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순교란 단순히 목숨을 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순교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 이익, 때로는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적 삶이란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Wi-Fi 없는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가 잠시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그 정도로 현대인에게 Wi-Fi는 물과 공기처럼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자신에게 'Wi-Fi 없이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평소에 휴대폰을 너무 자주 사용해서 공부하는거냐 가족과 대화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1주일 동안 Wi-Fi 없는 삶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괴로웠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인터넷에 접속하려고 하고, 손이 근질근질해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하지만 3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읽고, 가족과 저녁 식사도 함께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결국 1주일 동안 Wi-Fi 없는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내게 큰 희생이었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게는 큰 결단이었지만,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작은 결단들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순교적 삶입니다. 때로는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순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교자들의 위대한 희생을 기억하며 그들의 용기를 본받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편리함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남을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하는 작은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신앙인이 실천할 수 있는 순교적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

<https://banpo.or.kr/a/41172>

[한국의 모든 성인 축일]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 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나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히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